

## 「한국남부발전(주)」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76
----------	-----

발의년월일 : 2005. 7. 12.  
제안자 : 최천수 의원외 5인

### 1. 主 文

별첨 “결의문(안)”과 같음

### 2. 提案理由

- 우리 사하구의회는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려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화 전략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전 대상지역의 산업연관성과 파급효과 등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비교우위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이에 33만 사하구민과 사하구의회는 객관적 기준이나 타당성은 물론 지역산업의 연관성과 주민의 염원을 위해서도 「한국남부발전」이 사하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별첨과 같이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코자 함.

### 3. 보낼 곳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열린우리당부산시당, 한나라당부산시당

## 「한국남부발전(주)」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문(案)

얼마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자립형 지방화통을 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특성화 발전전략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함께 지역의 산업연관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관련기관이 선정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하지역은 부산의 서남단에 위치한 산, 강,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서부산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지방산업단지와 협업화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 급증과 함께, 향후 동북아관문으로서 교통관광의 중추적인 기능은 물론 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전망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주민의 기대욕구와는 반대로 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측면에서 볼 때 폐기물소각장을 비롯하여 각종 환경저해업종의 주민 기피시설들이 산재해 있음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우리 사하구가 열악한 환경속에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서부산 지역을 동부산권에 버금가는 도시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금번 「한국남부발전(주)」 본사의 이전지역이 전국 시도중 사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부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산하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사하지역으로의 배치는 지역연관성, 입지의 타당성과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감천에 소재하는 「부산복합화력발전소」는 2004년 친환경연료 사용 발전시설을 증공하기 전까지 1964년부터 석탄 및 중유사용에 따른 공해배출로 인근거주 주민 5만여명이 그 동안 겪어온 생활불편이 심각하였으나 본사 이전 등에 의한 경제적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므로 그 보상적 차원에서도 당연히 우리 사하구에 이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의 의원 일동은 38만 구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한국남부발전(주)」이 사하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年 7月 21日

釜山廣域市 沙下區議會 議員一同